

HD현대

HD HYUNDAI MAGAZINE

2026

WINTER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조선 1위 기업 HD현대중공업,
중형선박 분야 1위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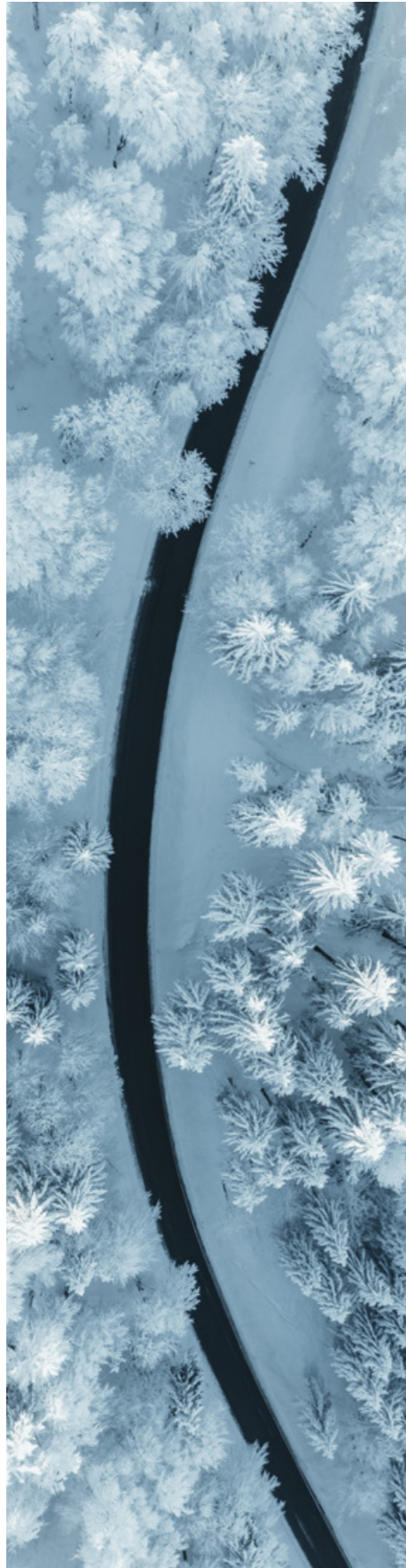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자부심을 지켜온 두 회사가
하나 되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K-방산과 한미조선협력을 주도하고,
친환경 스마트 기술로 K-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 HYUNDAI MAGAZINE 2026 WINTER

눈 덮인
겨울길은
미끄럽기에

여정에
더욱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새하얀 눈 위를
걸으면
지나온 발자국은
같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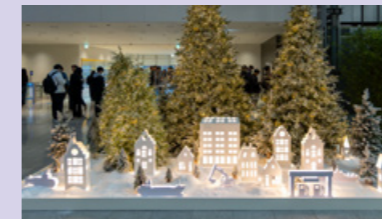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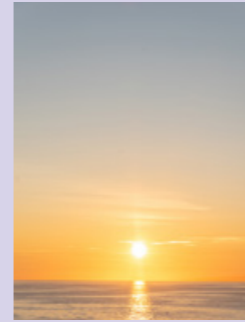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봄을 데려오듯

HD현대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HD현대 겨울호

발행일 2026년 01월 12일(월)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 | | |
|------------------|--|-----------|
| FOCUS | 프롤로그 HD현대 신년사 | 04 |
| | HD하이라이트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 / HD건설기계 출범 | 08 |
| HD INSIDE | 그날의 HD HD현대 5천 척 인도 기념 행사 HD현대 Safety Forum | 14 |
| | 현장을 가다 HD현대삼호 안전기획부 안전진단팀 | 18 |
| | HD돌보기 HD건설기계 / HX22 수소엔진 시동식 HD현대일렉트릭 / UL인증 획득, 북미 시장 공략 HD현대오일뱅크 / 서울대 AI센터 액체냉각 실증 HD현대삼호 / 저탄장 옥내화 공사 준공식 그룹사 소식 | 22 |
| | 미래를 여는 HD AIX 추진실 / AI 기반 Core Nesting | 28 |
| | HD 업(業)데이트 HD현대오일뱅크 미래 먹거리 사업 | 30 |
| | HD SNS '픽' MASGA 프로젝트 HD현대일렉트릭 Inside HDE | 32 |
| | 스타(★) 플레이어 HD현대 동호회 | 34 |
| | 우리네 이웃 HD아트센터 - 시네마 콘서트, 특별전시 | 40 |
| REFRESH | 로컬재발견 한탄강의 두 개의 길 | 42 |
| | 행복, 한 컷 | 46 |
| | 미라클 HD 100인의 부모 프로젝트 / 크리스마스 선물 | 48 |
| | 사랑을 나눴시다 | 50 |
| | 인사이트 건강칼럼 / 마음컨설팅 / 트렌드코리아 | 52 |
| | 사우 참여마당 사진 공모전 / 겨울호 퀴즈 | 58 |

'독보적 기술·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우리는 엔진의 출력 성능을 표현할 때 마력(馬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예로부터 끈기와 활력, 에너지를 상징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취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말의 모습처럼 우리 임직원 여러분도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조선과 전력기기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그룹 전체 실적은 개선세를 이어갔고, 이에 국내 기업 가운데 다섯 번째로 시가총액 '100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그룹이 '시장에 신뢰를 주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선박 '5,000척 인도'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AI,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고, 조선·건설기계, 석유화학 부문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성과들은 모두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의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확대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 간 합종연횡(合從連衡)을 통해 몸집 불리기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눈에 띄게 향상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이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선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수주량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를 앞서 있으며, 이제는 품질과 기술력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거센 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장이 인정하는 '독보적인 기술과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 인도한 선박들 중 일부는 중국 대비 연비가 20% 이상 뛰어나 고객사가 시운전 과정에서 매우 놀라워했고, 또 HD건설기계가 최근에 출시한 차세대 신모델 건설장비도 연비는 물론 조작 성능 면에서도 경쟁사보다 앞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졌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성능, 그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그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AI, 자율운항, 연료전지, 전기추진, 배터리팩, 로봇, 소형 모듈원자로(SMR),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상용화해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 없는 도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 없는 도전'은 준비 없이 뛰어드는 무모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무기로 삼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처음 발을 내딛는 용기와 같습니다. 허허벌판이던 바닷가

백사장에 조선소를 세우고, 동시에 두 척의 초대형 유조선 건조에 나섰던 우리의 첫 도전이 그랬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에서도 우리는 10층 건물 높이의 자켓을 1만km가 넘는 해상을 통해 운반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그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무대를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발을 내디딜 때는 본능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적 불안감은 과감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반대로 우리가 더 큰 가능성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주저 없이 논의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직의 창의성과 도전을 가로막는 매너리즘과 관성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간 합병, 석유화학 사업재편, 디지털 조선소로의 전환, 해외 조선소 확장 등 우리 앞에는 두려움 없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 같이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을 피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HD현대만의 DNA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만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건강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면서도, 구성원들이 일에 몰입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인정을 보내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또한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리더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리더는 그 의견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도 '이 조직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앞장서서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고 조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퓨처빌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룹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혁신과 두려움 없는 도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HD현대가 '가장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HD현대 회장 정기선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 '더 넓은 시장·더 강한 조선' 2035년 매출 37조 달성

지난달 1일(월) HD현대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조선업 사업 재편을 통한 K-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5년 매출 37조 원을 달성, 세계 1위 조선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양적·질적 대형화 통해 초격차 확보

HD현대는 지난해 8월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시장을 확대 및 다변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은 계열사 간 기업결합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는 만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10월 임시주총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여 각각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주주들 역시 합병의 필요성과 전략적 효용성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완료하는 등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재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통합 HD현대중공업의 출범은 글로벌 1위 중·대형 조선사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방산 부문 매출 약 10배 증대 목표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방산 분야에서 사업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 및 수출 실적을 보유한 조선사로서, 이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놓았다. 여기에서 HD현대미포가 갖춘 함정 건조에 적합한 사이즈의 도크와 설비 및 우수한 인적 역량을 결합, 급증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앞둔 상황과 전 세계 각국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이 지속됨에 따라 K-방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산 부문 매출을 약 10배 늘어난 1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R&D 및 설계 역량 결집해 신기술 개발

친환경 신기술 선점을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사의 R&D 및 설계 역량을 결집해 중형선에서 대형선으로 신기술 적용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낮추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 친환경 규제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북극권 개발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실적을 통합,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지난달 1일(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의 TV광고 '진짜 멋있는 남자'의 주인공인 김우빈 배우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사내 방송을 통해 송출된 영상에서 그는



"이번 통합이 더 강한 조선을 위한 도약이자,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란다"며 통합 HD현대중공업의 출범을 응원했다.



“Be the One, Be the No.1” HD건설기계, 하나 된 힘으로 글로벌 No.1을 향해

글로벌 영업 경쟁력 강화, 지역 맞춤 전략으로 성장 기반 확대

신흥시장에서는 초경제형 제품 출시에 더해 인도를 비롯한 급성장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신규 판매 기회를 발굴한다. 선진시장에서는 차세대 신모델과 컴팩 장비 판매 확대, 프리미엄 브랜드 강화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징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판매 전략으로 견고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의 요구와 고객 편의를 반영한 기술 개발 및 상품화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고객 업타임 향상을 위한 사전 정비 강화로 AM/PS 영역의 성장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엔진 사업 성장 가속, 미래 핵심 동력 확보

HD건설기계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엔진 사업은 지난해 초대형 발전용 엔진 DX37의 첫 시동 성공에 이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초소형 엔진도 신규 개발하는 등 라인업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HD건설기계가 통합법인으로 첫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지난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세대 신모델 출시와 울산 스마트팩토리 준공, 통합 준비까지 핵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하나 된 힘으로 글로벌 No.1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건설기계 부문 시너지 발휘해 사업 성과 창출 박차

HD현대사이트솔루션 또한 산업차량 사업에서 영업·기술·생산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최적화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컴포넌트솔루션은 사내외 매출 확대 및 품질·원가 경쟁력 증대를 통해 더욱 확장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원은 시장 수요에 기반한 핵심 기술을 적시에 상품화해 사업 성과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선제적인 기술 개발로 건설기계 부문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원 팀(One Team) 조직 문화로 No.1 DNA 구축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원 팀(One Team)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HD현대가 지닌 강력한 추진력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더해, 어떠한 도전도 성과로 만들어내는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No.1 DNA'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군산캠퍼스에 구축 중인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수요가 증가하는 발전·방산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적극 발굴하고, 미래 핵심 기술인 배터리와 수소엔진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 영역에서 초기 시장 진입 기회를 공략하며 엔진 사업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통합의 힘으로 생산 혁신 추진, 제조 경쟁력 강화

국내 공장은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내수·수출 물량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회사의 모든 공장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AI 기반 자동화 등 생산·품질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은 모든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최우선 가치로 고려되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제품



현대 차세대 신모델 HX400



디벨론 차세대 신모델 DX230LC-9



대형 수소엔진 HX22



현대 컴팩 굴착기 HX35AZ



디벨론 컴팩 트랙 로더 DTL



K2 전차 엔진 DV27K

HD현대중공업 × HD현대미포

지역과 함께 새 출발 응원!

2025년 12월, 전 세계 조선 산업을 지배할 '통합 HD현대중공업'이 탄생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합병을 기념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임직원은 물론 울산시민들도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며 모두가 HD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둘에서 하나로, 합(合)격! 이 조합

팡파레를 울린 건 HD현대중공업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였다.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와 댓글로 친구를 태그하고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K-조선의 새로운 이정표'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으며, 최종 200여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전달됐다.



조선의 명필가, 예쁜 손글씨로 응원

지난 12월 1일(월)부터 열흘간 HD현대중공업은 조선사의 명필가를 찾았다. 합병을 응원하는 글귀를 직접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이번 이벤트에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참여 가능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뚤비뚤 정성스레 적은 글귀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수작들은 지난 1월 5일(월)부터 사내 카페 슬리브에 기재돼 사우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울산 전역 누비는 버스를 찍어라!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도 함께 열렸다. 울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합병 광고가 붙은 버스를 찾아 사진을 찍으면 추첨을 통해 라한셀렉트 경주 숙박권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 이벤트는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친숙하게 다가간 평을 받았다.



HD하모니데이가 다시 돌아왔다!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였던 'HD하모니데이'가 합병을 기념해 다시 돌아왔다. 하모니데이는 식사, 보드게임, 스포츠 등 과반 팀위로 팀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 회사가 인당 3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다. 임직원들은 동료들과 화합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울산 동구를 비롯한 회사인근 지역 경제는 'HD하모니데이'로 한층 활기를 띠었다.



한겨울 한파 녹인 댄스 챌린지 열풍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기념해 양사의 야드를 무대로 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AI 기술로 제작한 음원 'One dream Begun'은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에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포인트 안무 동작으로 구성돼,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재미있고 멋진 영상을 보내준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됐다.



가왕을 찾아라, Voice In Ulsan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1일(월) 사내 방송에서 '보이스 인 울산(Voice In Ulsan)'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사내 '가왕'을 선발하는 자리로, 올 상반기에 진행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및 사내 협력사 임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향후 사내 방송 및 HD현대중공업뉴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HD현대, 세계 최초 선박 5,000척 인도

“1974년 유조선에서 2025년 필리핀 초계함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HD현대는 선박 건조를 시작했다.
 이후 유수의 조선소들과 경쟁을 거듭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선박 5,000척 인도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우리의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자랑스런 역사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전 세계 68개국 700여개 선주사에 인도

HD현대가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지 반세기만에 세계 최초로 5천 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HD현대는 지난달 19일(수)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 5천 척 인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한국해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가 5천 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Diego Silang)'이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28km/h), 항속거리가 4,500해리(8,330km)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으로 지난해 3월 진수돼 10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됐다. HD현대는 1974년 1호선인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Atlantic Baron)'호를 시작으로 이번 필리핀 초계함 '디에고 실랑

(Diego Silang)함'까지 총 68개국 700여 개 선주사에 고품질 선박을 인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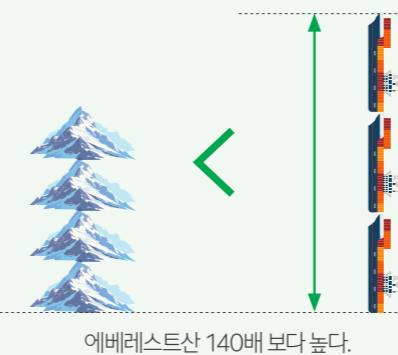
5천 척,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자부심

세부적으로는 HD현대중공업에서 4천 201척(舊 HD현대미포 1천 570척 포함), HD현대삼호에서 799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5,000척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전의 역사”라며, “함께 만든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 5,000척,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선박 5,000척 인도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기념해 조선 계열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 30만원권을 지급했다.

5,000 Ships

• 5,000척 선박의 규모는?



• 각 사별 인도 선박수

▶ HD현대중공업

4,201 척

▶ HD현대삼호

799 척



The Safe: An Endless Journey for ALL

안전: 모두를 위한 끝없는 여정



사업장 내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조건이다.
특히 우리 그룹은 중공업 위주의 사업 구조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

이날 열린 포럼에서 HD현대는 안전 비전인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공표하고, '시스템', '문화', '기술' 세 가지 핵심 전략 축을 기반으로 한 중점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 안전최고책임자인 이준엽 전무는 HD현대의 안전 경영 현황 소개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윤원철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이후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안전을 위한 AI Agent'에 대한 발표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안전의 모범 사례로서 산업현장에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일터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조건"이라며 "안전 문화를 만들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전 비전 선포... 근원적 가치 강조

HD현대는 지난해 12월 19일(금)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HD현대 Safety Forum'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HD현대의 안전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각 사 경영진 및 안전최고책임자(CSO)들이 참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을 비롯해 KAIST, 중앙대, 부산대 등의 학계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HD현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5년간 총 4.5조 원 규모의 안전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 역시 그 연장선에서 개최됐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더 세이프 케어'를 전면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9가지 '절대불가사오' 수칙 위반에 해당할 경우,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가 즉각 이뤄진다. 현재 '더 세이프 케어'는 HD현대 전 그룹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HD현대는 이날 선포한 안전 비전과 함께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및 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계열사별 그룹 비전 내재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간 벤치마킹 교류를 통해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장을 지키는 눈,
안전 파수꾼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
그리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현장의 가장 작은 변화,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먼저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들의 안전을
지키는 HD현대삼호 안전진단팀을 만났다.



무사고 작업장 조성은 우리의 사명

윤홍구 팀장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관리를 잘하는 팀으로 거듭나자는 약속으로 뭉친 이들은 무사고 작업장 조성을 위해 매일 분주히 움직인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동안전 종합대책' 전담 조직으로 새롭게 신설된 '안전진단팀'은 중대재해 근절 및 사고 없는 작업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다양하고 강화된 안전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이들을 안전 '5분 대기조'라 부르기도 한다.

안전진단팀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상시 운영을 통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기관의 점검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작업장의 안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안전 관리 최우선 덕목은 '꼼꼼함'

안전진단팀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야드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부딪힘, 끼임, 질식, 화재폭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목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요원, 관리감독자, 안전지킴이(Safe Clover) 등 3개 조직

237명이 참여하는 '3중 점검'을 통해 더욱 꼼꼼하게 현장 안전을 챙긴다. 이 시스템은 안전요원(안전진단팀)이 점검한 후 관리감독자가 재차 살펴보고, 다시 부서별 생산작업자 중에서 선발한 안전지킴이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식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정기·수시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 준하는 기준과 형식을 갖춰 모의점검도 진행한다. 정부 부처 감독관의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이 되어봐야 하는 법.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철저히 살핀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짚고 넘어감으로써 더욱 철저히 안전을 챙긴다.

간간하게 관리하는 만큼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있다. HD현대삼호의 경우 사고 발생 건수가 2023년 284건, 2024년 234건, 2025년 188건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HD현대삼호 사고 발생 건수

- 2023년 **284** 건
- 2024년 **234** 건
- 2025년 **188** 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 장비 안전 점검



사내협력사 안전행정 지원

윤홍구 팀장은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관리를 FM대로 할수록 우리도 현장도 어려움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회사의 안전 의식이 제고돼 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집중 교육으로 무사고 캐거

언어 장벽으로 인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상 안전 취약계층으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더욱 정밀한 맞춤 안전 케어가 이뤄진다.

이른바 '1010 안전활동'으로, 하루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분간의 맞춤 안전교육을 진행해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빠른 현장 적응을 돕는다.

전사 외국인 근로자 3천 700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며, 안전요원이 현장 작업장에 직접 방문해 국·지역별 번역된 교재가 들어있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및 코칭을 실시한다.

덕분에 31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 없이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게 됐으며, 활동 이래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무사고'를 유지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의 슈퍼맨이 되자" 윤홍구 팀장이 팀원들에게 항상 하는 주문이다.

윤홍구 팀장은 "체력관리는 물론 팀 자체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등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고, 단 하나의 안전 결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안전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 안전 점검 및 교육



안전 현황판 앞에서 업무 보고 모습

HD건설기계

세계 최대 규모
22리터급 수소엔진
'HX22' 첫 공개

HD건설기계가 선보인 세계 최대 규모 수소엔진 'HX22'가 첫 공개와 동시에 공신력 있는 상을 수상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관람객 눈길 사로잡은 대형 수소엔진

HD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4일(목)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World Hydrogen Expo 2025(WHE 2025)'에 참가했다.

'WHE 2025'는 글로벌 수소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수소 산업 행사로 지난해부터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산업전시회인 'H2 MEET'이 통합되며 규모가 확대됐다.

전시에는 국내 주요 기업을 비롯해 미국·독일·영국 등 해외 20개국에서 250개사가 참가해 수소 밸류체인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며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HD건설기계는 이번 전시에서 차량·발전용 11리터급 수소엔진 'HX12'와 22리터급 발전용 대형 수소엔진 'HX22'를 함께 전시하며 모

빌리티와 발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소엔진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동시에 'HX12', 'HX22' 모두 'WHE 2025 베스트 프로덕트 미디어 어워드'에서 대상에 선정되며 수소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HX12'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HX22'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엔진으로 대용량 수소엔진 시장의 지평을 넓힌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동식 성공! 실증 단계 본격 진입

앞서 HD건설기계는 지난해 11월 12일(수) 군산공장에서 'HX22'의 첫 시동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로 무탄소 대형 수소엔진 실증 단계에

돌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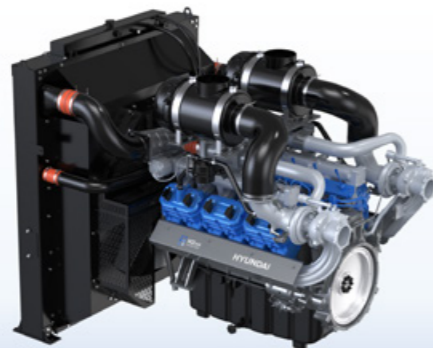
HX22는 V형 12기통 구조로 최대 출력이 600kW(816마력), 연속 출력 477kW(649마력)의 성능을 갖췄다. 약 200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 솔루션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특히 올해 2천 시간 이상 실증 운전을 통해 내구성과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HX12는 이미 1천 500 시간 이상 실증 운전과 상용차·굴착기 탑재 시험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이 두 엔진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HX22



HX12 22

HD현대일렉트릭

UL인증 획득으로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공략 가속화

HD현대일렉트릭이 중저압차단기 제품군의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북미 배전기기 시장 진출 가속화

HD현대일렉트릭의 △기중차단기(ACB) △배선용차단기(MCCB) △진공차단기(VCB) △전자개폐기(MC) 등 중저압차단기 4종이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cUL(캐나다 UL)을 획득했다.

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도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의 경우 북미 시장 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 UL과 cUL 인증이 사실상 필수로 요구돼 제품의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전력 분배를 담당하고, 과부하 발생 시 전류를 차단해 설비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비다. 전압 등급과 용도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수요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중저압차단기 시장 연 평균 8.8% 성장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중저압차단기 시장은 2024년에 122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에는 292억 달러 규모로 2.4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8.8%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충북 청주에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청주 배전신공장은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첨단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연간 중저압차단기 생산량이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인 약 1,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Power your projects
with world-class UL Breakers



23



HD현대오일뱅크

서울대와 AI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실증 나서

HD현대오일뱅크가 서울대와 협력해 캠퍼스 내 AI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 시스템을 도입한다.

액침냉각 시장 공략 가속화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액침냉각 시스템 운영업체인 데이터빈과 함께 '인공지능 인프라 액침냉각 실증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실증 프로젝트는 서울대의 인공지능 연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냉각 기술이 필요해 추진됐다. 실제 공랭식으로 운영 중인 서울대 AI 연구실 서버에서 발생하는 팬 소음과 높은 내부 온도로 인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생긴 상황이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의 액침냉각 기술을 적용해 2026년 초부터 기존 공랭식을 액침냉각 방식으로 전환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 프로젝트에서 서울대학교는 액침냉각 성능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센터와 GPU 서버를 제공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테스트에 필요한 액침냉각액 공급과 함께 기술 자문 및 유지보수를 맡는다. 데이터빈은 침지냉각시스템인 'SmartBox'를 설치하고,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센터 냉각의 새로운 해법

현재 액침냉각 기술은 데이터센터 등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안정성 검증 단계에 있다. 특히 서버와 액침냉각재 간의 호환성을 실제 사용 환경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대에서 사용 중인 서버를 실제 활용하게 되면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AI 연구소 환경에서 액침냉각 기술의 안정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액침냉각 기술은 데이터센터용 서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 열을 관리하는 차세대 냉각 방식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발열이 급증하면서 기존 공랭식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4년 '엑스티어 E-쿨링 플루이드' 브랜드를 출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네이버클라우드에 액침냉각액을 공급하는 등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삼호

화력발전 환경오염 위험 잡을 저탄장 옥내화 공사 순항

HD현대삼호가 보령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에서 진행 중인 저탄장 옥내화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령 저탄장 옥내화 시설 A동 준공

HD현대삼호 산업설비부문 보령화력프로젝트 부가말아서 진행한 한국중부발전 저탄장 옥내화 공사 A동 준공식이 지난해 11월 26일(수) 개최됐다. 이번에 준공한 저탄장 옥내화 시설 A동은 길이 233m, 폭 111m, 높이 58m 규모의 장방형 저탄고로, 콘크리트 9만 7,000톤과 철골 5,200톤이 투입된 대형 복합 구조물이다. 여기에 석탄 상·하역 장비 4기와 총 3,300m 길이의 연계 운반 컨베이어까지 신설하는 등 기술적으로 시공 난이도가 높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재을 사장을 비롯해 이준혁 전무, 한국중부발전 경영진, 안전기술 임원,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사 완료를 축하했다. 김재을 사장은 "중대재해 없이 계획된 일정 내 공사를 마무리한 보령프로젝트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대공간 B동 역시 무사고로 납기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태안도 준공 마무리... 보령 공사에 집중

저탄장 옥내화란, 석탄 등의 발전 연료를 옥외 저탄장에 쌓아놓고 보관하던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장 내부에 연료를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료를 옥외에 쌓아놓을 경우 날림 등의 문제로 환경오염 유발이 심각해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저탄시설을 야외에 보유한 화력발전사는 이를 건물 안으로 설치해야 하는 옥내화의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한국중부발전의 보령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 등 국내 주요 화력발전시설은 일제히 저탄장의 옥내화 공사를 발주했으며, HD현대삼호가 각각 일부 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 이 중 HD현대삼호가 보령발전본부에서 진행 중인 저탄장 옥내화 공사는 이번에 준공한 A동에 더해 B동까지 계획돼 있으며, B동은 오는 2027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태안발전본부에서 진행 중인 저탄장 옥내화 공사 역시 준공을 마치고 올해 초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



HD현대1%나눔재단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 개최



HD현대1%나눔재단이 지난해 12월 9일(화) 판교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수상자에는 1983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해 40여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해 힘써온 정덕환씨가 선정됐다.

또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암·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이주노동자·난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

원해 온 민간 의료봉사 단체 '라파엘클리닉'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안나의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위기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해 온 김하중 신부가 선정됐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들이 선정한 '1%나눔상'에 이름을 올렸다.

HD현대로보틱스
차세대 AI 로봇 제어기 'Hi7' 출시



HD현대로보틱스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로봇 제어기 'Hi7'을 공식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어기는 올해 개정된 ISO 10218 로봇 안전 규격에 맞춰 HD현대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로봇 안전기능 '세이프스페이스(SafeSpace) 2.0'을 탑재해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해 로봇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Hi7'은 레이더(Radar) 센서를 연동해 주변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보다 정밀한 안전 제어가 가능해졌다. 또한 협동로봇 뿐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도 모두 적용 가능한 확장성도 강화되었다. 이번에 선보인 'Hi7'은 AI 기반 로봇 기술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군과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고객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룹 차원의 스마트 제조 혁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한국해양대와 실습선 방선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11월 14일(금)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 실습선 방선 및 이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국해양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선박 및 엔진 분야 관련 실무 경험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LNG 연료 추진 선박의 기본

구성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어 직접 실제 선박에 방선해 추진시스템, 연료 공급장치, 기관실, 조타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박 및

엔진 유관부서 직원, 방선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HD건설기계
2025년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완료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2025년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창호·욕실·주방 등 주요 설비부터 도배, 장판, 가전까지 교체하며 집안 곳곳을 개선한다.

2025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가구를 포함해, 해당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 18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올해는 경상북도 의성군 애곡지사 유족 배영운 어르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6·25 참전유공자 한상진 어르신, 경북 영천시 6·25 참전유공자 이기태 어르신 등 3가구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준공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 및 지역 인사, 주민들이 참석해 새 보금자리 마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 신재생에너지협회 15대 회장 취임

HD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환 대표가 지난해 11월 26일(수) 제15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 전문 인력양성,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발전과 업계의 공동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330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박종환 대표는 취임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를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별 기술 교류와 실증기회 확대, 글로벌 시

장 진출 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유럽·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5GW(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으며, 국내 최초로 N타입 탑콘(TOPCon) 기술을 적용한 645W(와트)급 1등급 모듈 양산에 성공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CEO가 AI 기술 개발 직접 챙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AI는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자 HD한국조선해양은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 조직인 'AIX추진실'을 신설하며 AI 기술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조선·해양' 미래 경쟁력은 AI로부터

AIX추진실은 AI Center, DX Center, 팔란티어 전략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생산, 설계, 설비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AI Center의 대표 과제 중 하나는 'HiCAMS' 고도화다. AI Center는 선박 및 아드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영상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 상황을 탐지하는 시스템인 'HiCAMS'를 개발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및 생산 현장 곳곳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 및 선제 대응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DX Center가 추진 중인 대표 과제 중 하나는 설계 플랫폼에서 만든 디지털 정보를 제조 혁신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 구축'이다. 설계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해 설계와 생산이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 작업 상황을 분석 및 판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 현장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한, 팔란티어전략기획팀에서는 FOS추진부와 함께 2030년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 구축을 위한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 진행 과제자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여러 자재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재고 기반 최적 설계를 반영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물량은 빠르게 식별하고, 일 단위 변

하는 재고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AIX추진실에서는 AI를 활용해 현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과 시스템이 업무 전반에 점차 확산되며, 조선·해양 산업의 현장은 더욱 스마트하고 첨단화된 환경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 AIX추진실이 만들어갈 미래의 산업 현장이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

인공지능(AI)으로 제조 효율화 실현

현시점에서 AI를 활용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은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변압기 핵심 소재인 규소강판의 사용 효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Core Nesting 최적화로 경쟁력 강화

HD현대일렉트릭과 HD한국조선해양 AI센터는 지난해 제조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12개의 AI 기반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그중 탁월한 원가 절감 효과를 입증한 과제가 바로 'AI 기반 Core Nesting 알고리즘 최적화'다.

규소강판은 변압기 제조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료비가 투입된다. 규소강판은 코일 형태로 공급되며, 이를 다양한 폭으로 절단해 활용하는데, 절단 폭 조합에 따라 잔재(Scrap) 발생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절감 여지가 큰 소재다.

예를 들어 동일한 1m 폭의 강판을 0.6m와 0.4m 조합으로 절단하면 잔재가 없지만, 0.3m 폭으로 세 번 절단할 경우 0.1m 폭의 잔재가 발생한다. 이러한 잔재율을 1%만 줄여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21년부터 *Core Nesting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이를 한 단계 고도화하고자 강화 학습과 몬테카를로 트리서치(MCTS)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수천 가지 절단 조합 중 최적의 결과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됐고, 재고 강판의 우선 소진 여부, 공급업체별 재고 현황 등 실제 생산 조건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별 규소강판 사용량을 평균 2.24% 절감하고, 잔재 재

고는 7.02% 축소했으며, 절단 대상 강판의 수가 줄어들면서 작업 생산성 역시 9.7%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앞으로도 HD한국조선해양 AI센터와 협업해 해당 알고리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절단 업체와의 협업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프로젝트 전반의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Core Nesting: 보유 중인 코일과 잔재를 활용해 프로젝트 단위 폭발 필요 소요량에 맞게 최적의 절단 조합을 찾는 행위



정유를 넘어, 미래 에너지로

HD현대오일뱅크는 정유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지속가능 항공유(SAF) 그리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자원 사업까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SAF, 하늘을 위한 약속

지속가능 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폐식용유, 식물성 오일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활용해 생산되는 항공유로, 국제 항공업계의 탄소 감축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최대 80%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항공업계의 탄소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각국 정부는 SAF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유럽은 2050년까지 항공유의 70%를 SAF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국내 출발 항공편에 SAF 혼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정유 설비를 활용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으로 SAF를 생산하는데, 이 방식은 석유 기반 원료와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해 제조하는 기술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

생산된 SAF는 ISCC EU, ISCC CORSIA, ISCC 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으며, 항공유 품질 기준인 ASTM 인증까지 완료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바이오디젤, 지속가능한 연료의 시작

동·식물성 기름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항공유나 선박유 등 다양한 바이오 연료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됐다. 기존 석유 기반 경유와 물성이 유사해 별도의 엔진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소 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4년 국내 최초로 초임계 공법을 적용한 바이오디젤 전용 공장을 대산공장 내에 준공하고, 연간 13만 톤 규모의 상업 가동 및 생산을 시작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는 초임계 공법을 통해, 팜유, 대두유와 같은 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타 경쟁사와 다르게 팜유의 비식용 부산물인 "팜잔사유"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 폐식용유 같은 폐기물 기반 원료를 활용해 식량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합하는 것이 의무화이며, 2030년에는 혼합비율이 8% 수준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열분해유,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로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를 통해 얻는 액체 원료이다. 기존에는 소각되던 폐자원을 다시 정유 공정에 투입할 수 있어,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외부로부터 도입된 열분해유는 정유 공정에 투입되어 ISCC PLUS 인증을 받은 순환 납사, 순환 프로필렌 등으로 재탄생한다.

과거 소각되던 폐기물을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부가가치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해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 활용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순환 제품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료 및 제품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원료 수급 체계 구축과 더불어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효율화에도 힘쓰고 있다.

'조선업 대가가 바라본 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손을 잡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인력 양성, 기술 교류까지 추진하는 대형 협력 사업에서 HD현대의 역할과 전략 등을 특별 대담을 통해 풀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D현대 신종계 기술자문



아비커스 엄성희 책임매니저 HD현대 김성훈 책임매니저

MASGA 프로젝트의 배경과 HD현대 기술 동향

HD현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 "K-조선업의 향후 50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 조선업 대가가 바라본 MASGA"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이번 콘텐츠에는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 신종계 기술자문과 「진짜 하루만에 이해하는 해운·조선 산업」의 공동 저자인 HD현대 김성훈·엄성희 책임매니저가 출연, 현장의 생생한 시각과 조선업 대가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MASGA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HD현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공급망이 좋은 선도 회사"라며 "상선 분야의 경쟁력은 물론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다각도면에서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평했다.

HD현대는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조선 분야 글로벌 인적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

HD현대는 또한 지난해 6월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 인재 양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서울대, 카이스트 및 미국의 미시간대, MIT 등 총 13개 대학의 조선,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신종계 기술자문은 친환경 연료, 디지털 트윈, 자율운항 같은 미래 기술이 중요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은 훌륭한 인력 확보와 동시에 친환경·디지털 기자재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같은 솔루션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엄 책임 역시 다양한 기술을 받아들여서 조선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기술자문은 기술 협력과 함께 '글로벌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HD현대가 글로벌 조선 인재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Inside HDE'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직무 소개를 넘어 구성원의 고민과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HD현대일렉트릭의 도전과 노력을 담아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배전해외영업부의 성취로운 하루

'Inside HDE' 5화의 주인공은 배전해외영업2부 임현서 책임매니저다. 영상은 임 책임의 출근길로 시작해 북미 지역 중저압차단기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영업 실무자의 하루를 밀도 있게 비춘다.

시차를 고려한 고객사 메일 대응, 업무와 연관된 외신뉴스 검색, 납기 관리 등 해외영업 직무의 실제 업무 흐름이 자연스럽게 소개된다.

특히 북미 지역 장기 파견 경험이 눈길을 끈다. 북미 시장의 필수 요건인 UL 인증 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사전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조사·미팅 등을 수행한 과정이 담기며 글로벌 영업 현장의 역동성이 드러났다.

고객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연구·개발부서와 협업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가는 과정도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A to Z, 제품의 모든 것을 꿰뚫다

영업은 모든 고객과 통하는 창구이기에 기술, 품질, 프로젝트 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게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 책임은 많은 부서들과 협업을 하고 필수적으로 유관부서들과 소통을 즐긴다.

또한 HD현대글로벌R&D센터 6층 중저압차단기 SMART 기기 시험실에서 신규 UL 인증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발부와 기술 사양을 논의하는 장면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 배전기기 제품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지는 해외 전시회 준비 회의, 팀원들과의 소통, 업무 후 짧은 커피타임 등은 배전해외영업2부의 활기차고 끈끈한 조직 문화를 보여준다.

이밖에도 영상에는 임직원을 위한 복지 제도도 소개되어,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HD현대의 기업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내 동호회로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더하다



일과 일상 사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행복이다.
 퇴근 후나 주말, 같은 취향으로 모인 사람들과 몸을 움직이며 쌓인 피로를 털어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금세 가까워진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회사 안에서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진다.
 이번 2026년 신년호 스타플레이어에서는 HD현대 계열사 동호회 5팀의 활동을 한데 모아 소개한다.
 올 한 해 각 동호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사진 속 담긴 동료들의 활기와 에너지를 함께 느껴보자.
 특히 새해를 맞아 일상에 작은 루틴을 하나 더해보고 싶은 사우라면, 마음이 가는 동호회부터 가볍게 발을 들여봐도 좋겠다.



現重 축사모(FLC) 토요일 새벽 6시, 같이 공 찰 사람!

축구를 엄청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 NO!
 축구를 좋아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모임? YES!

새벽 6시 킥오프, 주말을 여는 에너지

축사모는 1997년 6월, HD현대중공업 인사원 가·회계·총무·설계 직원들이 “회사 생활에 활력 좀 더해보자”는 마음으로 모여면서 출발했다. 지금은 재직자 51명과 퇴직자 5명 포함, 총 56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정기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진행된다. 아침 일찍 한 게임 뛰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져, 가족·친구들과 더 활기찬 주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다. 운동 후 시간이 되는 회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든든하게 아침 한 끼를 함께하며 여운을 나누기도 한다.



즐겁고 안전하게 오래 가는 축구

축사모의 또 다른 매력은 한마디로 “못해도 된다”는 점이다. 축구 실력이 부족해도 가입할 수 있고, 의지만 있다면 선수 출신 감독·코치 역할을 하는 선배들에게 배우며 자연스럽게 늘어가

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축사모의 운영 모토는 ‘부담 없이, 안전하게’다. 괜히 무리하다 다치거나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회 참가처럼 성과 중심으로 달리기보다는 회원끼리 가볍게 즐기며 오래 가는 방식을 택했다.

축사모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다. 50대 이상 회원이 한 쿼터(약 30분) 안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면, 그날 아침밥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 농담처럼 시작한 얘기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룰’이 됐다. 헤트트릭을 한 사람도 기분 좋고, 덕분에 다 같이 맛있게 먹는 사람도 좋은 축사모만의 유쾌한 문화다.

또 분기별로는 타 지역 축구회나 동구내 공공기관(경찰서·동구청 등) 동호회와 교류전도 이어가며, 축구로 인연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꾸준히 같이 뛸 사람”을 찾습니다!

※ 1~2개월 참여도 체크 →
 임원진 투표로 입단 최종 결정

가입 문의

회장 홍승일 책임매니저
 HD현대중공업 상생지원부

뷰파인더(VIEWFINDER) 찰나의 빛이 담아낸 '드림의 미학'

'사소한 풍경도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특별해진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날로그 감성 한가득 '찰각'

HD현대마린솔루션에는 16개 동호회에 약 350여명의 직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진 동호회 '뷰파인더'가 있다. 필름 카메라의 아날로그 감성과 '드림의 미학'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모여 매월 이론 수업부터 출사까지 함께하며 사진으로 기록한다.

매월 모여 GRC 인근 공원은 물론 가까운 명소로 출사를 떠난다. 지난해 봄에는 분당 황새울 공원에서 봄빛을 담았고, 가을에는 남한산성으로 야간 촬영을 떠나 계절의 색과 분위기를 그대로 카메라에 옮겨왔다.

사소한 풍경도 특별해지는 마법

뷰파인더의 활동은 동호회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지난해 회사 전사 맥주축제인 '잔Beers'에서도 이어졌다. 축제 당일, 동호회원 모두가 필름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을 누비며, 임직원들의



웃음 가득한 순간을 정성스럽게 담아냈다. 여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아날로그 감성 넘치는 사진들이 탄생했다. 특히 이들은 '잔Beers' 축제 때 찍은 슬라이드 필름 사진을 루페(Loupe, 필름을 확대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대경)로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축제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필름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며, 많은 임직원들은 그저 지나갔을 법한 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또, 뷰파인더 동호회는 전시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슬라이드 필름 보관 케이스에 담아가는 이벤트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뷰파인더는 필름 카메라뿐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을 즐기며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호회다. 사진 경력이나 장비 상관없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 '사소한 풍경도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특별해진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문을 두드려보자.

가입 문의
회장 조재일 선임매니저
HD현대마린솔루션 가스엔진스마트케어부

동호회의 꽃 '밴드' 음악으로 하나 되다!

음악은 그 시절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불러일으킨다.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따뜻한 마음의 위로도 주기에 우리는 음악을 찾는다.



일상은 로그아웃, 음악에 로그인

동호회의 대명사는 단연 밴드가 아닐까. HD현대오일뱅크 밴드동호회 '로그아웃'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음악에 로그인한다. 초심자부터 경력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사우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고 있다.

'로그아웃'은 악기를 다루지만 함께할 기회가 없던 사람과 음악을 좋아하지만 계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밴드는 '음악을 마음껏 즐겨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HD현대오일뱅크에 더하여 타 계열사 멤버들도 함께하는 '범 그룹사 밴드로' 성장해 현재는 보컬 3명, 기타 3명, 베이스 2명, 건반 2명, 드럼 2명으로 구성돼 모두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격주로 다 같이 모여 정기 합주를 진행하며, 가요·팝·록·메탈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다.

자작곡 발표로 기대되는 2026년

로그아웃의 장점을 물어보니, 모두가 '음악이 주는 위안이 크다'며 입을 모아 말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음악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이들은 밴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동심과 책임감이라 말한다. 서로의 소리를 존중하고 배

려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팀워크가 있기에 이들은 날이 갈수록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으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얻은 도전의 경험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의 결과물로 올해 자작곡을 발표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언젠가는 GRC에서 그룹사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벌써 다음 공연 준비에 착수한 로그아웃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로그아웃의 공연 실황 영상과 일상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그아웃 유튜브 채널



'뫓부리 산악회' 산봉우리에서 이어온 30년의 동행

추운 겨울. 이불 속이 가장 안전하다만, 기꺼이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자연 속에서 함께 나는 소중한 시간을 들여다보자.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산행

HD현대일렉트릭 '뫓부리 산악회'는 1994년 계동 사무소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어느덧 설립 30년을 넘어섰다. 당시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출발한 모임은 현재 분당·용인 근무 임직원을 중심으로 총 33명이 함께하는 산악회로 성장했다. 그룹 내 타 계열사로 이동한 직원, 퇴임 선배까지 두루 참여하며 세대와 직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뫓부리는 '산의 꼭대기, 봉우리'를 뜻하는 방언으로,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오르는 산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동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안전, 건강, 친목이다.

매달 산행 코스는 회원들의 추천을 반영해 난

이도 중하 수준의 근교 산으로 정하고, 하산 후 가벼운 식사로 여정을 마무리한다. 뫓풀이를 강요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덕에 처음 오는 회원들도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다.

등산은 날씨가 도와줘야 하는 법

지난해 산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



는 질문에 모두들 '월출산'이라 답한다. 전날까지 퍼붓던 폭우로 인해 산행은 사실상 힘들었다. 하지만 '날씨 요정'이 많은 뫓부리 회원들 덕분인지 산행 당일 기적처럼 그치며 맑게 갠 하늘과 시원한 폭포가 펼쳐졌고, 좋은 날씨 덕분에 한층 더 즐겁고 끈끈한 분위기의 산행이 됐다.

반면, 몇 해 전 백두산 산행은 악천후로 인해 천지에 오르지 못하고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웃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뫓부리 산악회'는 중국 황산 등 해외 산행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산악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등산에 관심이 있다는 사우가 있다면 연락해보자.

'산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의 건강한 문화'가 오래 유지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가입 문의
회장 이인규 책임매니저
HD현대일렉트릭 배전국내영업2부

'ISAAC TOAST' 학습의 열정이 혁신을 만든다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우들.
개인의 성장과 조직 전체의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해 오늘도 학습하는 이들도.

셀(CELL) 제도 통해 업무 역량 키워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직원들이 업무 속에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무인·자동화, AI, VR 등 첨단 기술 개발을 비롯해 설계, 시스템 제어, 자격증 취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셀(CELL, Community of Employee-Led Learning)과 기술직 학습 동아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이삭 토스트(Isaac Toast)' CELL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 스마트굴착기 기술팀, 스마트주행장비기술팀, 스마트안전기술팀 등이 모여 결성한 학습 동아리로, 가상 환경에 굴착기 어태치먼트(Attachment)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버킷(Bucket), 포크(Fork), 그레플(Grapple) 등 다양한 어태치먼트에 대한 작업 시뮬레이션과 함께 굴착기 하부체, 캐빈 내부 인터페이스 등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하고 운전자가 더욱 편안하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이스틱을 구상하는 과제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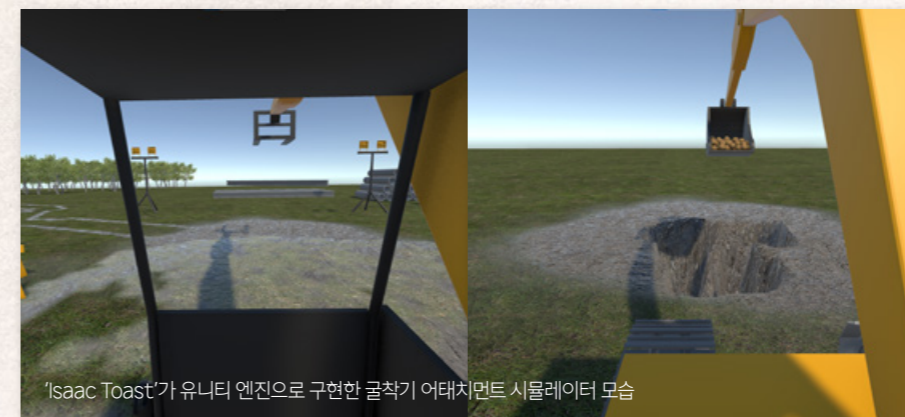
다양한 과제 수행... 우수 CELL 선정

'Isaac Toast'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유니티(Unity)의 3D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엔진을 활용해 개발을 진행했다. 과거 수행한 과제 중 발견된 한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오픈소스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아이작 심(Isaac Sim)'을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Isaac Toast' CELL의 뜨거운 학습 열기는 각 개인별 전문성 향상은 물론 회사 기술경쟁력 확보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상반기 우수 CELL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팀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하며 함께 배우다 보니, 이해도 빠르게 재미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본인들의 학습 열정이 회사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한편,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지난 10월 국가 기술자격인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시험에서 역대 최다인 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특히 기술직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직원들이 다수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ac Toast'가 유니티 엔진으로 구현한 굴착기 어태치먼트 시뮬레이터 모습

HD INSIDE



시네마 콘서트 배우 이상엽과 허드슨 앙상블의 조합

시네마 콘서트

일 시 : 2월 26일(목) 19:30
장 소 : HD아트센터 대공연장
관람등급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가격정보 : HD아트센터 홈페이지 참고
(HD현대 임직원 30~50% 할인)

배우 이상엽의 해설과 영화 속 명장면을 수놓았던 음악을 허드슨 앙상블의 연주로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찾아온다.

배우 이상엽과 허드슨 앙상블이 올 산을 찾는다. 영화 속 명곡을 실내악 편성으로 재 해석하고, 배우 이상엽은 영화의 주요 장면과 음악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감정을 해설하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의 해설은 음악을 단순히 듣는 데서 나아가, 작품의 의미와 감정을 함께 공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해, 음악에 익숙하지 않는 관객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 영화 함께 사랑받은 명곡들이 펼쳐진다. 여기에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시네마 천국> 사랑의 테마가 더해져, 추억과 낭만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화의 감성이 어우러진 이번 '시네마 콘서트'는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며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네 이웃



HD Art Collection 특별전 '예술, 따뜻하게 스미다'

HD Art Collection: 예술, 따뜻하게 스미다

일 시 : ~ 26년 2월 8일(일)
장 소 : HD아트센터 미술관
관람료 : 무료
관람시간 : 10:00 ~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HD아트센터가 소장품 가운데 주요 작품을 엄선해 선보이는 특별전 <HD Art Collection: 예술, 따뜻하게 스미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HD아트센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해 온 소장품 중 예술적·문화적 의미가 깊은 작품들을 선별해, 그 가치와 맥락을 다시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온기와 울림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는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묘법'을 비롯해, 한국화의 대가 서세옥의 '사람들 2009', 근대 한국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상범의 '청전 산수', 김병종의 '생명의 노래' 등 한

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지역 원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어,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과 미학적 다양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사진, 판화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시대별 미술사의 흐름과 각 작가가 구축해 온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작품은 직접 소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겨울에만 허락되는 한탄강의 두 개의 길

겨울이 시작되면 한탄강에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린다. 강 위에 설치된 부교를 따라 걷는 '물윗길'. 오직 겨울에만 걸을 수 있으니, 손끝 시려오는 계절이라도 반가울 따름이다.

절벽 끝에 매달려 한탄강을 누빌 수 있는 주상절리길도 추천한다.
겨울만큼은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서늘한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글 & 사진 여행 작가 봄비(김혜민)

겨울, 강 위를 걷는 유일한 시간

오직 겨울에만 열리는 겨울 한정 여행지, 한탄강 물윗길이 찾아왔다. 여름에는 보트를 타야 볼 수 있었던 강 위 풍경을 두 발로 걸으며 느낄 수 있다. 공공 언 강 위에 두동실 떠 있는 이 부교는 매해 10월부터 설치에 들어가 12월이면 전면 개방되고 3월 말이면 다시 철거된다. 한탄강 물윗길이 탄생한 것은 2017년부터다. 빨간 철제다리인 태봉대교에서 순담계곡까지 약 8km 이어지는 길로, 편도는 2시간 정도. 쉬엄쉬엄 걸으면 3시간도 넘게 걸릴 각오를 해야 한다. 힘들다면 중간 중간 출구 겸 입구가 있으니 원하는 만큼만 걷고 돌아가도 괜찮다. 가장 인상적인 구간은 '송대소'. 한탄강 물줄기가 심하게 꺾이는 지점에 자리해, 강의 양 벽에 물의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생긴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이 물길을 따라 이어진다. 50만년 전 분출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다 식으며 형성된 4~6각형 모양의 주상절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보는 즉시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다. 쾨커이 쌓인 역사가 마치 꽃잎처럼 펼쳐진다. 송대소를 거쳐 은하수교까지 지나면 한 번에 200명은 족히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마당바위'가 나온다. 천연 바위라고 믿기에 어려울 만큼 자연이 만든 쉼터의 위용은 대단하다.

태봉대교 주차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522-13번지
입 장 료 : 성인 10,000원 / 청소년 4,000원
운 영 시 간 : 09:00~17:00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



아찔한 잔도(棧道) 위에서 절경을 걷다

사다리 '잔'에 길 '도'의 한자를 쓰는 잔도는 한탄강을 둘러싼 절벽 끝에 만든 사다리 같은 길이다. 이 길을 만드는 데 무려 4년, 약 3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절벽에 구멍을 뚫어 받침대를 고정하고 철재로 연결했다. 지상 20~30m 높이 절벽에 만들어 진 것으로, 그 사이에 무려 13개의 다리(잔교)도 놓여 있다. 단층교, 선돌교, 화강암교, 돌단풍교 등 다리 이름만 봐도 이곳이 어떤 땅, 어떤 지질 위에 서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주상절리길에 가려면 순담매표소와 드르니매표소를 통하면 된다. 어디로 가도 무료 셔틀버스가 다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난히 해가 빨리 지는 차디찬 도시 철원을 여행하려면 이른 아침 길을 나서기를 추천한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50%는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니 메모해 두자. 참고로 입장료를 결제했으면 물을 한 병 챙기는 것이 좋다. 주상절리길에는 따로 매점이 없으며, 물은 제한된 음식물은 반입 제한이다. 철망 사이로 펼쳐지는 풍경은 선볼리 발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아찔하다. 한탄강의 협곡 지형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잔도가 만들어졌기에, 길은 예측 불허다. 국내 최초로 암반에 설치된 반원형 케이블전망대에서 협곡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한다. 기암괴석과 한탄강 보는 재미와 아찔함을 더한 주상절리길을 완주하는 데는 약 2시간이다.

철원한탄강주상절리길 순담매표소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순담길103
입 장 료 : 성인 10,000원 / 청소년 4,000원
운 영 시 간 : 동절기 09:00~16:00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



송대소 주상절리



승일교 부근 방벽

한국의 나이아가라 직탕폭포

태봉대교에서 500m만 더 가면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직탕폭포'가 나오는데, 입장료는 따로 없다. 직탕폭포에 도착하면 과연 입소문이 난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다른 폭포와 달리 하천면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높이는 고약 3m 정도지만, 그 너비는 약 80m에 달해 얼마나 넓게 펼쳐진 폭포인지 감이 온다. 규모만 따지자면 나이아가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두부침식을 겪으며 후회한 지형이라는 점에서는 나이아가라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비경(祕境)

한탄강을 위에서 내려다보려면 은하수교와 햇불전망대가 제격이다. 철원군의 상징인 두루미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은하수교. 별도로 이루어진 길이라는 이름처럼, 은하수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S자로 이어진 물윗길이 마치 별처럼 강물 위로 쏟아지는 것 같다. 바닥은 구멍이 뿔뿔 뚫려 있어 졸졸 흐르는 한탄강이 발아래 펼쳐진다. 중앙에 유리로 되어 있는 스카이워크 역시 주변 경치를 즐기기에 좋다. 더 높은 아찔함은 은하수교와 연결된 '햇불전망대'에서 느낄 수 있다. 16개의 원형 기둥이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멀리서 보면 거대한 햇불 같은 독특한 모양이다. 높이는 45m인데 햇불 조형물까지 포함하면 53m다. 특히 전망대의 높이는 1945년 광복의 기쁨을 상징하고, 1953년 정전협정의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겨울은 이한치한(以寒治寒)이다. 올 겨울 추우면 더 추운 곳으로 가서 그 풍경을 즐겨보면 어떨까.

함께 들르면 좋은 곳



• 승일교
 1948년 북한에서 착공했지만, 6·25전쟁으로 중단되고 1958년 우리 정부에서 완공한 다리



• 고석정
 철원 9경 중 하나인 고석정은 조선시대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 숨은 곳으로 알려진 명소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트리가 HD현대를 밝혔다.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로비에 대형 트리가 들어서며 익숙한 공간이 단숨에 연말 분위기로 물들었다.

임직원들은 출퇴근길 잠시 걸음을 멈추고 트리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100인의 부모가 주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지난해 12월, GRC와 울산에서는 HD현대 그룹 임직원이 '100인의 부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후원아동 50명을 위한 '연말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후원을 넘어 결연을 통해 따뜻한 나눔

'100인의 부모 프로젝트'는 HD현대1%나눔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HD현대 임직원 2명과 아동 1명이 결연을 맺어 100명의 임직원이 총 50명의 아동에게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대상자인 아동들은 저소득·위기가정의 아동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게 병원비·학습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치료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은 지난해에 아동들과 함께하는 벽화 만들기 봉사활동, 어린이날 맞이 편지쓰기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며 복합위기가정의 아이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봉사 당일에는 사전 희망물품 조사를 통해 준비한 학용품, 간식, 생필품 등을 선물상자에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여 임직원이 직접 작성한 응원 편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았다. 준비된 선물꾸러미는 다음날 후원 아동들 각자의 집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HD현대일렉트릭 회계팀 이혜림 사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연말을 맞이해 동료들과 함께 의미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임직원의 급여 1%를 자발적으로 기부받아 운영되는 재단으로, 임직원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아이들 동심 지키기 위해 산타로 변신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해 12월 17일(수)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행사를 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본부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아동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 단위 나눔 캠페인이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22년부터 HD현대중공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본부와 함께 지역 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신입사원 등 직원 10명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크로스백, 목도리, 무릎담요, 무드등, 멀티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직접 포장해 아동 110명에게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 울산에 뜬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HD현대인들이 산타로 변신해 울산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담긴 선물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해피보트'에 뜬 산타로 변신한 CEO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HD현대중공업 이상군 부회장은 산타로 변신해 직원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상군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월) '해피보트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집에 깜짝 등장한 이상군 부회장은 아이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곰돌이 모양 바라클라바, 보드게임 등 준비한 선물을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에 직접 건넸다.

또한 이날 이상군 부회장은 교사, 영양사, 조리사, 미화원 등 어린이집 교직원 73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쿠키 간식을 전달하는 등 묵묵히 원아들의 성장을 도우며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있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빠랑 목욕탕 가는 날만 기다려요”

66

99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다가온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상황.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지만,

신용불량자인 지웅 씨(가명, 43세)에겐 언감생심.

가뜩이나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얼어붙지만, 다섯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웅 씨와 지연 씨(가명, 39세)네 부부는 오늘도 힘을 낸다.

시골벽적이고 행복이 넘치는 가족

지웅 씨네 가족은 늘 시골벽적이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 밑에 늘 즐거운 에너지가 솟는 삼형제까지, 이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들 부부는 어느 가족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 왔다. 지웅 씨는 가족을 위해 타지에서 근무하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지만, 흠이 되진 않았다. 오히려 애뜻함이 넘치며 끈끈한 부부였다. 그러던 중 지웅 씨의 직장이 갑작스레 폐업을 하면서 몇 달 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실직을 하게 됐다. 당장 생계비가 부족했던 부부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했고, 다행히 지웅 씨는 곧장 재취업에 성공해 다른 지역에서 일을 이어갔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하다

지연 씨가 막내를 임신하던 해에 코로나가 찾아왔다. 전 세계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결국 지웅 씨도 피해갈 수 없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와이프. 지웅 씨는 다섯 가족을 위해서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 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고, 이들 가족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여만 갔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삶은 풍족했다. 첫째 진우(가명, 11세)는 누구보다 동생들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런 만행을 따라 연우(가명, 9세), 선우(가명, 4세)도 작고 보드라운 고사리손을 보냈다.

힘들어도 오뎅이처럼 일어나야

지연 씨도 마냥 두 손 놓고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막내가 어느 정도 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길 무렵, 보험설계사에 도전했다.

자식 3명을 돌보며 일을 하기엔 쉽지 않았다. 발가락이 부러지며 몸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오뎅이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 손가락 힘줄이 터지며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지웅 씨 역시 2023년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 기흉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며 지낸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면서 그동안 받은 대출들로 인해 지웅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대출을 더는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이들 가족은 추운 겨울, 퇴거 위기에 놓였다.

목욕탕 가는 날만 기다려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엔 쉽지 않다. 이사 비용 마련부터 막막하다. 다섯 가족이 살다 보니 고정지출이 많아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지는 앞이 캄캄하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웅 씨와 지연 씨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한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지웅 씨는 하루 3번씩 꼭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친구들이랑 무엇을 했는지 등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가깝게 붙어있다.

그리고 2~3주에 한 번 집으로 오는 지웅 씨는 울산에 오면 늘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다. 삼형제는 아빠가 오는 날이면 “아빠, 목욕탕 가자”며 먼저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허름한 동네 목욕탕이지만, 냉탕에서 잠수하고 물장구친 후 삶은 달걀에 바나나 우유 하나 마시면 워터파크 저리가라다.

부디 지웅 씨네 가족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소망해본다.



백세 시대 식탁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

- 글 서울아산병원 -

‘백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다. 건강한 백세가 되기 위해선, 지금 당장 식탁 위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야 한다.

100세를 향한 건강한 밥상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량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만은 노쇠를 앞당기고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체질량지수(BMI)를 통해 자신의 체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몸무게를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질 좋은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육량과 근력은 30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고령으로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진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 예방은 물론 체력 저하나 낙상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의 하루 단백질 권장섭취량은 약 60g인데, 이를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 한 끼에 20g 정도씩 먹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이다.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조절과 뇌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기를 고를 때 살코기를 선택하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3회 정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버터와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등을 활용하고 간식으로는 도넛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추천한다. 다만 체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 역시 1 티스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거꾸로 식사법으로 혈당 관리

무엇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은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식이나 급격한 혈당 상승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습관이 필요하다.

거꾸로 식사법은 먼저 샐러드, 나물, 쌈 야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으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와 같은 단백질 식품과 건강한 지방을 먹는다. 밥이나 면류와 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섭취하는 방식이다.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 흡수를 안전하게 해 혈당 변동 폭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 결과 체장의 부담은 덜고,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백세 시대의 건강한 삶은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식사 선택에서 비롯된다. 적절한 체중 관리, 매끼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건강한 지방 선택 그리고 식사 순서를 의식하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오늘 식탁에서의 사소한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100세 건강 식사 수칙



균형 잡힌 단백질

- 달걀
- 닭가슴살
- 두부와 콩류



건강한 지방 선택

- 견과류
- 등푸른 생선
- 올리브유, 들기름 등



거꾸로 식사법

- 식이섬유
- 단백질
- 탄수화물



일상의 습관

- 규칙적인 운동 통해 체중 조절
- 흰밥, 흰빵 대신 잡곡, 통밀
- 간식은 견과류, 과일, 채소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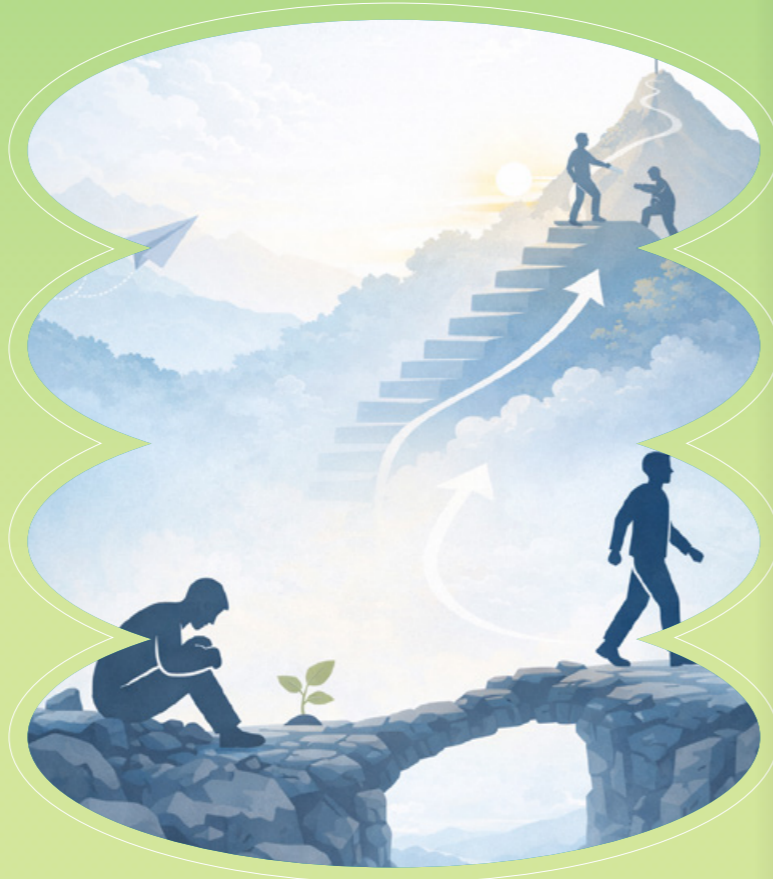
"백세 시대의 삶은 특별한 식이요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상 식사에서 비롯된다. 적절한 체중 관리, 매끼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건강한 지방 선택 그리고 식사 순서를 의식하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회복탄력성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결

- 글 김상근 상담사 (HD현대중공업 마음정원) -

일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래 무너져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주저앉았다가도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힘을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부릅니다.



후천적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연구의 선구자 에미니 워너(Amy Werner)와 루스 스미스(Ruth Smith)는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698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40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섬 주민들은 빈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발달 경로를 보이는지 연구했고, 특히 역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유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환경,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이라는 점입니다.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빨리 잊기

역경이 생기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판단력이 부족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어느 순간 바꿀 수 없는 것을 애써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역경이 찾아오면 그 상황이 본인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고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앞으로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고, 본인 인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 역경도 언젠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내 인생 전체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관점 차이가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주며,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회복탄력성' 키워드



후천적 노력으로 가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역량



역경은 빨리 잊기
역경은 금방 지나간다는 관점으로 해석, 인생 전체의 문제로 부각하지 않기



감정 억누르지 않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



실패는 성공의 과정
실패의 과정에서 배울 점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성장하기

또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며, 오래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바꿀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감정은 억누르지 않고 지혜롭게 받아들이야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라고 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안하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불안하지만, 내가 나아갈 방향은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들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간이 강한 회복력을 만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성공을 향한 과정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한 결과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은 실패한 결과물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까지 뻗어나가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힘을 앗아갑니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 안에서 배운 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면서 '이번 일은 잘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운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은 우리가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고립되거나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협력을 통해서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더 좋은 개선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고립되거나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도서 _ 김주환 著 <회복탄력성>

일과 삶을 지키는 새로운 지표, 건강지능(HQ)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예사롭지 않다. 100세를 사는 '호모 헨드레드'의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는 이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더 오래도록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됐다. 지식으로 성공하던 시대에는 지능(IQ)이, 관계가 중요한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감성지능(EQ)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건강지능(Health Quotient, HQ)이 삶의 필수 역량이 된다.

과학적 건강관리의 중요성

높은 건강지능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건강관리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는 인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단·운동·멘탈 등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건강관리에 대해 검색하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많은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뿐더러, 일반인들이 낯선 의학용어를 말하며 자신이 시도한 건강관리 방법, 논문과 전문 서적 등에서 접한 지식 등을 상세하게 공유한다.

소비자들의 건강관리가 과학적으로 되고 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정보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는다. 과학적 원리와 근거를 따져보며 나에게 적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취사선택한다. 필요하다면 직접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수치로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찾아보며 지식을 고도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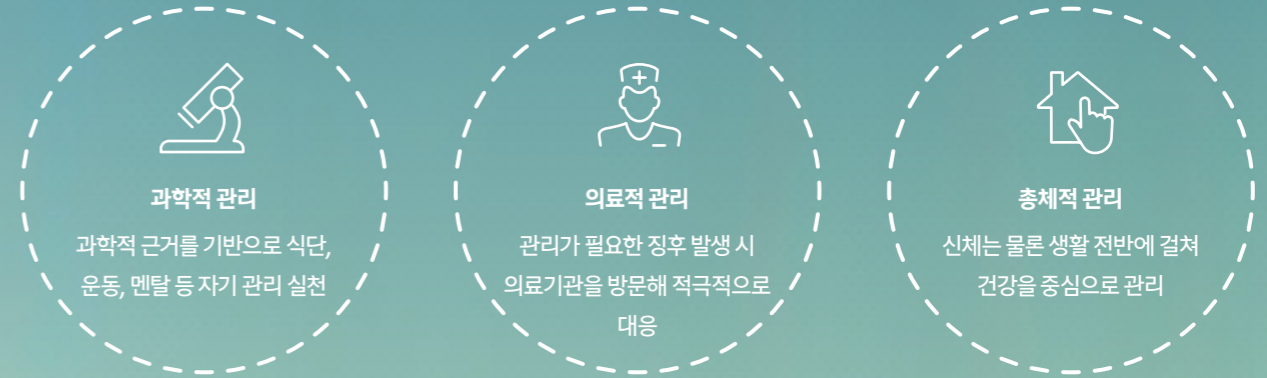
가령 다이어트를 할 때도 무조건 굶거나 특정 음식으로만 제한하는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 대신, 과학적 원리가 동원된 '혈당 다이어트'를 활용한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는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식사 구성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채소·단백질·지방을 먼저 먹도록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혈당 상승을 방지한다고 알려진 '애사비(사과 발효 식초)'를 식후에 챙겨 먹는 식이다.

적극적인 의료관리는 필수

둘째는 노화·체형·성장 등 관리가 필요한 징후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수술·호르몬 치료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건강이 시대적 화두가 된 이유는 자명하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긴 인생동안 가능한 오래도록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이다.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아프면서 오래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닐 것이다.

건강지능 실천 키워드



중년남성의 고민이라 불리던 탈모는 화장품으로 가리거나 기능성 샴푸 등을 통해 해결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모발 이식' 등을 위해 공장 병원을 찾아 의료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시도한다.

체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위고 비라' 불리는 GLP-1 계열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화제다.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얻게 됐고, 체형 관리에 있어 약물 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있다.

GLP-1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한다. 또, 뇌의 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등 이러한 작용 덕분에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난다.

건강지능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일찍부터 의료적 관리를 시작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영·유아기 시절부터 몸에 좋은 영양제는 기본이며, 청소년기에는 병원에서 성장 주사를 처방 받기도 한다.

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 추구

마지막은 신체 전반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및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로써 건강을 관리한다.

아침 7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의 손에는 술이 아닌 커피가 들려 있다. 이 독특한 파티는 아침에 열리는 광란의 파티(Rave)라는 의미에서 '모닝 레ιβ'라 부른다.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의 모닝 파티가 열리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단순 몸이 건강한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한지, 충분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이 시간을 보내

는 환경이 건강에 이로운지까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하게'를 추구하는 총체적 관리로 나아가고 있다.

식사뿐만 아니라 달달한 간식까지도 건강하게 챙긴다. 과거 탄수화물 및 당분을 줄이는 고단백 음식들이 유행했다면 최근에는 '유산균 아메리카노', '유산균 아이스티' 등의 기능성 성분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워치 등 여러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 생체신호를 상시적으로 체크하며 건강관리를 파악한다. 심박수와 걸음수는 물론이고 혈관 스트레스 지수와 항산화 지수까지 알려주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도화로 이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한층 더 쉽고 정확해지고 있다.

건강이 시대적 화두가 된 이유는 자명하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긴 인생동안 가능한 오래도록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이다.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아프면서 오래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닐 것이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헬스케어에 앞다퉈 진출하는 것만 보더라도, 건강관리는 향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지금 소개된 건강 관련 정보는 최근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원한다면 반드시 의사 및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참고도서 _ <트렌드 코리아 2025>



2026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다가왔다. 새해 계획한 목표가 있다면 올해만큼은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지 않게 반드시 성공하자. 예로부터 붉은 말은 추진력, 열정 등을 상징한다고 알려졌으니, 성공의 기운은 충분하다.

자고로 새해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반대로 목표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선언한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

금연, 다이어트, 출산, 학업, 취미, 이사 등 어떤 주제도 환영이니,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당찬 포부와 각오가 담긴 사진을 공유하자. 당선된 사우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선물할 예정이다.

새해 목표 응모 방법

QR코드(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응모 페이지에 접속한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담은 사진과 간략한 설명 2~3문장의 내용을 함께 보낸다.

 <https://forms.gle/sqfWTrEZfzoGzXYx6>
응모 기간 : 1월 12일(월) ~ 2월 13일(금)
상 품 : 투썸플레이스 생크림 케이크



겨울호 QUIZ

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Z

- 1 HD현대가 1974년 첫 선박을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최초로 ●●●●척 선박을 인도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 2 HD현대는 지난 12월 19일(금) '●●'이라는 근원적 가치를 주제로 SAFETY FORUM을 개최하며,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HD현대오일뱅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캠퍼스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 시스템을 도입한다.



※ 답안 제출 시 순서대로 3가지 답안 모두 기재할 것.



지난 호 정답

① 더세이프케어 ② HD건설기계 ③ 명장

퀴즈 응모 방법

퀴즈 정답을 2월 6일(금)까지 QR코드(또는 하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vn7YicRR83FDLQPT7>

※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2025년 가을호 퀴즈 당첨자 선정

치킨 기프티콘(2만원 상당)

- 이성현 HD한국조선해양 HSE전략팀
- 문성철 HD현대삼호 설비보전부
- 김성준 HD현대이엔티 의장설계1부
- 오지운 (주)은성기업
- 최경수 HD건설기계 기능시험/검증관리파트
- 김명호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 김태승 HD현대중공업 RUYA공사부
- 정희경 HD현대사이트솔루션 기술전략팀
- 김정환 HD현대중공업 중형선공사지원부
- 이유나 HD현대로보틱스 FPD사업팀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

- 백지훈 HD현대중공업 건조1부
- 김지훈 HD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개발부
- 최동민 HD현대이엔티 미포품질검사부
- 심현섭 HD현대중공업 함정시운전부
- 김영귀 한결솔루션
- 방경일 HD현대중공업 조선안전부
- 이시은 HD현대삼호 건조1부
- 곽재원 HD건설기계 제어솔루션개발팀
- 우범식 HD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 김진구 HD현대마린솔루션 제어시스템부

- 이창민 HD현대중공업 중형선커미셔닝부
- 홍현민 HD건설기계 가공부
- 김용성 (주)성호이엔지
- 이혜진 HD현대중공업 수소에너지연구실
- 강수동 HD한국조선해양 선박제품기획부
- 백종규 HD현대중공업 군산안전보건과
- 백윤기 진우산업
- 이재혁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SCM부
- 김현철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실
- 안슬아 HD건설기계 생산기술팀